

물가상승폭 석달 만에 확대...공공요금 23.1% ↑ '역대 최대'

통계청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채소류 물가 21.6% ↑ ...배추 72%·무 118%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연속 둔화했던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확대된 모습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1년 전보다 5.7% 오르며 석 달 연속 5%대 상승률을 보였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더니 3월(4.1%), 4월(4.8%) 4%대에 이어 5월(5.4%)에는 5%대로 올라섰다. 6월(6.0%)과 7월(6.3%)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은 8월(5.7%) 7개월 만에 꺾인 데 이어 9월(5.6%)까지 두 달 연속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

유류 등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4.2%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물가는 5.2% 올랐다. 채소류 가격이 21.6% 오르면서 농산물 물가가 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작 품목을 보면 배추(72.3%), 무(118.1%), 토마토(29.5%), 파(24.0%), 양파(25.4%)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축산물 가격은 1.8% 오르는 데 그쳤다. 돼지고기(3.3%), 수입쇠고기(6.3%) 등은 올랐으나 국산쇠고기(-1.8%) 가격이 하락했다. 수산물 물가는 6.5%를 보였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6.3% 상승했다. 경

유(23.1%), 등유(64.8%) 등 석유류 가격이 10.7% 올랐으나 전월보다는 2.4% 하락하며 상승 폭이 둔화했다. 빵(15.3%) 등 가공식품 물가는 9.5%나 상승했다. 이는 2009년 5월(10.2%)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가격 상승률은 23.1%로 2011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높았다. 도시가스(36.2%), 전기료(18.6%), 지역 난방비(34.0%) 가격 상승이 모두 반영되면서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0.8% 올랐다. 유치원납입금(-19.1%), 사립대학교 납입금(-0.8%) 등은 하락했으나 외래진료비(2.3%)와 국제항공료(20.0%)가 상승했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6.4% 상승하며 1998년 4월(6.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이 중 생선회(9.2%), 치킨(10.3%) 등 외식 물가는 8.9% 올랐다. 다만 지난달(9.0%)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둔화했다. 외식 외 서비스 물가도 4.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세는 전세(2.4%)와 월세(0.9%)가 모두 오르면서 1.7% 상승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 중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6.5% 상승했다. 생산,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4%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2009년 2월(5.2%)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보다 4.2% 올랐다. 2008년 12월(4.5%)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어 심의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물가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6%대로 올라가거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러 "당분간 5%대의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1월 물가 지표의 경우 지난해 높은 물가에 따른 역기지 효과가 작용하면서 오름세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의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산유국 협의체 OPEC+(플러스) 감소 결정 등 상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5%대 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 기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긴장할 채소류 수요 확대, 환율·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긴장재료 수급 관리와 농수산물 불안 품목 가격안정화, 가공식품 가격 인상 최소화 등 장비구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김장철 배춧값 작년보다 싸고, 마늘·건고추 등 양념류 비쌀 듯"

올해 김장철 배추 출하량이 늘면서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무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건고추, 양파, 마늘 등 양념채소는 생산량이 줄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관측정보에 따르면 11월 배추 출하량은 평년보다 1.3% 줄겠지만 작황이 부진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11.8% 증가할 전망이다. 이달 도매가격은 10kg 상품 기준 7000원으로, 평년(6674원)보다 비싸지만 작년(9822원) 보다는 3000원 가까이 저렴하다.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4000원 넘게 내렸다.

가을배추 작황이 전년 대비 양호하고 출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다음 달 출하량이 더 늘어나면 가격은 작년이나 평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12월 배추 도매가격은 10kg 기준 평년에는 5655원, 작년에는 7895원이었다.

배추와 더불어 김장의 주재료인 무는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평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전망이다. 재배면적은 늘었지만 생육기 기온 하락과 강수량 부족으로 생산단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11월 가을무 출하량은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 이달 도매가격은 20kg 기준 1만1500원으로 전년(1만1492원)과 비슷하겠지만 평년(9727원)과 비교하면 18.2% 비싸다. 다음 달에도 지난해(1만940원)와 평년(1만622원)보다 다소 비쌀 것으로 보인다.

고춧가루에 쓰이는 건고추와 마늘, 양파, 대파 등 김장철 양념채소 가격은 지난달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비쌀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고추 생육이 부진해 이달 건고추 도매가격은 600g 기준(화진 상품) 1만3000원 안팎으로, 1년 전(1만1205원)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정보, 김장 채소류 분석 배추 출하량 전년 증가...도매가 3천원가량 하락



양파는 출하 조절로 공급량이 줄면서 이달 1kg 상품 기준 1500원으로 작년(892원)보다 600원 넘게 비쌀 것으로 예측됐다. 마늘은 1kg 상품 기준 8100원으로 작년(8178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파는 출하량 감소로 kg당 1850원으로 1년 전(1604원)과 비교해 인상 폭이 두드러진다. 무집게 치솟은 물가로 인한 김장철 가격 부담에 올해 김장을 작년보다 적게 하겠다는 소비자 비중이 30.3%로 작년보다 많이 할 것(14.2%)이라는 비중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정부는 전년보다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마늘, 고추, 양파 공급량이

늘리기 위해 비축물량을 대거 시장에 내놓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건고추는 매주 500t씩 비축물량 1400t을 시장에 공급하고, 마늘은 비축물량 5000t을 깎아 마늘로 가공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양파는 매주 240~500t씩 총 3600t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 불안 품목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주요 품목 할인 지원을 통한 김장비용 및 소비자 체감물가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며 "우려하던 김장철 주요 재료의 가격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전남도 운영 남도장터, '최대 30%' 할인

수산재료, 다음달 16일까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진행

전남도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장비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김장철 수요가 많은 제철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남도장터'에서 수산물 30% 할인행사를 오는 12월16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는 김장철에 필요한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굴, 천일염 등 김장재료를 알뜰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북·충·경·지역·다시마 등 전남을 대표하는 수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기공 과장은 "올 겨울 김장은 전남의 건강한 수산물로 맛있고 실속 있게 준비하길 바란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하는 할인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새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연합회와 공동으로 4일부터 사흘간 경기 용인시 보정동 힐링정원에서 '전남도 우수 수산물 직거래 장터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슬비기자

로얄코펜하겐, 한정판 '스타 플루티드'



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 로얄코펜하겐은 연말을 앞두고 '스타 플루티드(Star Fluted)'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로얄코펜하겐이 매해 연말 시즌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스타 플루티드 컬렉션은 덴마크의 크리스마스 전통과 문화 같은 분위기를 담아

냈다. 제품의 가장자리를 따라 크리스마스 트리를 상징하는 가문비 나무 가랜드 패턴 위에 리본, 하트, 드림, 천사 등 제품마다 각기 다르게 장식했다. 스타 플루티드 컬렉션에서는 매해 새로운 제품이 출시된다.

신제품은 음식을 따뜻하게 서빙하기에 적합한 '뚜껑있는 볼'이다. 다 같이 나눠먹을 메뉴를 볼에 담고 식탁에서 뚜껑을 열면 된다. 만찬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접시, 볼, 오발 디쉬를 비롯해 티타임을 위한 티팟, 컵앤소서, 2단 트레이, 불온퓌, 캔들 홀더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스타 플루티드 컬렉션은 12월31일까지 한정 판매된다. 전국 로얄코펜하겐 백화점 매장 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만날 수 있다. 오유나기자

휴테크 안마의자,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맞이 프로모션



헬스케어 전문 기업 휴테크산업은 '2022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기 제품 최대 68% 할인 혜택

휴테크 측은 "소비, 상생, 가치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힘이 되고자 '2022 코세페'에 동참하게 됐다"며 "안마의자 구매를 고민하셨던 고객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프로모션을 동시에 진행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마의자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휴테크는 물류비 및 달러 상승에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며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코세페 맞이 프로모션 기간에는 인기 안마의자를 최대 할인율로 판매할 계획이다.

휴테크 직영점과 백화점 브랜드관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카이(KAI) GTS9 아트모

션, 카이 GT9 아트모션 등 휴테크 인기 안마의자를 대상으로 최대 58%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직영점에서 안마의자 체험하고 상담카드 작성시 웨이브 볼을, 안마의자 구매시 바디케어 발마사지기 화이트필을 사은품으로 추가 증정한다.

온라인으로 안마의자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위해 휴테크 온라인몰인 '휴테크몰' 회원 전용 혜택도 마련했다. 카이 GTS7 아트모션, 컴마 브라운 안마의자,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마사지 쿠션 등 스테디셀러 안마의자와 헬스 가전들을 최대 68% 할인한다.

2022 코세페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휴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오뚜기, '쉐이크 앤 팬' 2종 리뉴얼 출시

오뚜기가 기존보다 용량을 더 늘리고 반죽의 점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쉐이크 앤 팬' 2종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리뉴얼한 제품은 홈페이지킹으로 인기가 높은 '핫케이크믹스', '와플믹스' 2종으로, 용량 기준 150g에서 250g으로 늘려 더욱 넉넉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죽의 점도를 바꿔 식감이 촉촉하면서도 용기에서 잘 흐르는 최적의 반죽 점도로 개선했다.

촉촉한 식감과 부드러운 크림향이 어우러지는 '오리지널 맛'으로,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을 섭취할 수 있어 영양 간식으로 좋다.



거품기, 계량컵, 반죽 그릇이 필요 없고 우유만 넣고 흔들면 반죽을 만든 뒤 프라이팬에 구우면 바로 완성할 수 있어 조리부터 설거지까지 매우 간편하다.